

행정고시 합격 수기

박근우

(2021년도 행정고시 일반행정(전국) 직렬 합격자)

“누군가 저에게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본다면, 저는 가장 먼저 공공인재원에 지원해 보라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안암에서 보낸 3년간의 수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곳이 바로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입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벽들을 말씀드리며, 각각에 대하여 공공인재원에서 받은 도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금전적인 부담이라는 벽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학원 강의를 통해 1차와 2차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때 강의비와 서적 구매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 때 공공인재원에서 제공되는 강의비 지원 프로그램 및 서적 구비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 및 서적 수령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점이 특히 고마운 점이었습니다. 또한, 선배님들께서 미리 신청하신 서적들을 여가시간에 읽으면서 더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딪히는 벽은 혼자 공부를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벽입니다. 학원가에 가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순간 자신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의 공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와 같은 의문을 품곤 합니다. 또한 수험 생활 초기의 결의와는 다르게 조금은 풀어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면서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공공인재원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언제나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보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출신 합격생 선배님들과 공공인재원이라는 채널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방향에 대한 조언이나 세부적인 생활에 관한 팁들을 선배님들로부터 들으며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직생활로 인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께서 받으신 지원을 후배에게 베푼다는 마음으로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터디를 구하기 쉽다는 것도 또하나의 장점입니다. 공공인재원이 안암에 위치해 있고 5층에 다수의 스터디룸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신을 다잡기 위한 생활관리 제도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석체크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이용을 하지 않은 실원에 대해 경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험생활 초반부터 자주 공공인재원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수험생활 중에도 큰 슬럼프를 겪지 않고 합격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신 교수님들과 합격생들로부터 직접 2차 과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그리고 공공인재원이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 준비 기간 중에 교수님들께서 모의고사도 직접 출제하여 주시고 직접 첨삭도 해주셨습니다. 2차 시험의 채점위원분들께서는 대학교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실전과 비슷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긴장도 되었지만, 가장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순환 기간동안 거의 매일 풀게 되는 강사 모의고사 답안도 합격생 분들이 첨삭을 해주시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실력 향상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인재원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우리 학과와 교수님들께서 공공인재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을 아껴주시고 항상 어떤 점에서 더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봐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공직에 꿈을 가진 많은 학부생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정말 공직에 대한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우미가 바로 공공인재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